

백두대간보호법 시행령(안) 입법예고

법안요지 · 문제점

# 현장조사 부실 ... 여론수렴 시늉만

2003년 12월에 제정된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백두대간보호법)'의 시행령안이 8월 31일 입법예고 됐다. 그러나 2005년 1월 1일 발효를 앞둔 이 법률과 시행령(안)은 당초 입법 취지와 달리, 지역 사촌의 종교 활동은 물론, 지역주민들의 건전한 경제생활까지 제약하고 있어 반발을 사고 있다. 이에 따라 백두대간보호지역의 합리적 선정을 위한 여론 수렴과 피해 보상 방안 마련 등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 백두대간법과 시행령(안)의 골자

환경부와 산림청이 마련한 '백두대간보호법'과 '시행령(안)'의 핵심은 난개발로 인한 백두대간의 훼손을 막기 위해 보호지역 내의 개발 행위와 범위·기준·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백두대간보호법은 백두산에서 시작돼 금강산·설악산·태백산·소백산·지리산으로 이어지는 백두대간을 핵심구역과 완충구역으로 구분, '문화재 및 전통사찰의 복원·보수·이전 및 그 보존관리를 위한 시설물 설치' 등을 제외한 개발행위를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또한 시행령(안)에서는 백두대간 지역 주민들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농가주택, 농림축산시설, 기타 조립식 건조물 건립 등 불가피한 개발의 한계를 설정하고, 국방·군사·도로·철도 등 공공시설 설치 등의 협의 방법 등을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이에 따라 백두대간보호법과 시행령(안)에 백두대간 내에 2천 2백여 만평의 토지를 소유한 174개 사찰에 대한 언급이 생략되는 등 향후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 문제점

오대산을 대표하는 월정사가 백두대간보호구역의 합리적 지정과 적절한 보상을 요구하는 성명서를 9월 3일 발표했으며, 강릉 보현사도 8월 30일 항의집회를 개최했다. 여기에 평창 무주 진안 등 지역적으로 낙

이렇게 사찰과 주민, 환경단체들이 반발하는 데는 몇 가지 이유가 있다. 백두대간보호법의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월정사는 백두대간보호구역에 대해 "충분한 현장조사 없이 탁상에서 선을 그어놓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도심지역인 태백과 황계의 일부가 백두대간 보호구역에 포함돼 있을 뿐만 아니라, 농지 잡종지 종교용지 심지어 도로까지 포함돼 있다는 것이다.

자연공원법 등 관계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것도 문제다. 월정사는 "이미 자연공원법, 농지법, 전통사찰보존법 등에 의해 각종

## 문화재·전통사찰 보존행위의 개발 제한

### 보호구역에 도로·도심·농지 포함 "안될 말"

후된 전라남·북도와 강원도, 경상북도 주민들도 백두대간 보호구역에서 제외시켜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강원도의회는 이미 백두대간 보호법 제정으로 건의안을 청와대와 환경부에 제출한 상태다.

환경단체들 또한 "핵심 보전구역 내 도로, 군사시설 등 대규모 국책사업과 광산개발 등을 허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지적하고 있다. 일부 지역의 민원에 고령지 체소단지의 경작을 허용하는 것은 행령에 어긋나다는 것이다.

개발과 공사가 불가능한 상황인데도 다시 백두대간보호법을 제정하는 것은 행정절차만 복잡하게 하는 일"이라고 말한다.

여론 수렴 과정 역시 충분하지 못했다. 몇 번의 공청회만이 열린 채 백두대간 보호 지정에 해당사찰 및 주민 참여가 거의 배제된 상태다. 특히 백두대간 내 상당한 토지를 소유한 불교계를 백두대간보호위원회에서 배제했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것이다.

불교계에서는 백두대간보호법의 보안을 위해 국립공원과 전통사찰들을 백두대간보

## 임진왜란 희생자 한·일 합동위령제

17일 남양주 봉선사에서

임진왜란 희생자들의 원혼을 달래기 위한 한·일 합동위령제가 열린다.

조계종 제25교구본사 봉선사(주지철안)와 (사)일본이동교실협회(이사장 고우이치로우)가 '한일공동 임진왜란 희생자 위령제'를 9월 17일 남양주 봉선사 설법전에서 봉행한다.

일본 측의 제의로 이뤄지는 이번 행사는 임진왜란 때 목숨을 잃은 한국의 희생자들의 원혼을 달래고 양국의 친선과 평화정신을 확산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이를 위해 일본이동교실협회 고우이치로우(江孝一) 이사장과 고야산 연화원 허가시아마 태청 등 일본 측 인사 10여명이 16일날 입국할 계획이다.

위령제는 봉선사 주지 철안 스님의 봉행사를 시작으로 봉선사 조실 월운 스님의 법문과 봉행사인 진촌기원법요식, 봉선사합창단의 조가 등으로 진행된다. 또한 위령제가 끝난 후에는 조선조 마지막 황태자비이자 일본의 공주였던 이방자 여사의 묘 금곡등을 찾아 이 여사의 원혼을 기릴 예정이다.

김은경 기자 ilpck@buddhapia.com

호구역에서 제외시켜줄 것과, 사찰대표 및 주민을 보호구역 지정에 참여시킬 것 등을 요구하고 있다.

강유신 기자 shanmok@buddhapia.com

## 한국의 비구니 스님 <22> 정덕 스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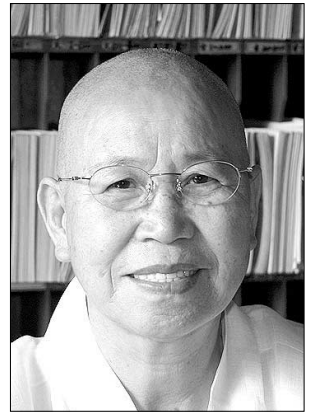
### 불법 사회화 전방위 활동

"아파하는 이웃들을 그냥 보고만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시작한 자비의 전화 상담이 벌써 10년이 넘었네요. 사사로운 개인 감정이야기에서 가정, 직장, 사회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주제로 아파하는 중생들의 목소리를 듣고 함께 아파하며 슬픔을 나누는 것이 기쁘기만 합니다."

1990년 개설된 '자비의 전화'에서 14년 동안 부처님의 말씀을 통해 중생의 아픔을 어루만져주고 있는 서울인과선원 주지 정덕 스님.

전화뿐만 아니라 자다가도 일어나 사연을 듣는다는 스님의 말씀에 천수천안 관세음보살님의 마음이 느껴진다.

1933년 부산에서 태어난 스님은 젊은 시절 진리에 대한 목마름으로 유교를 비롯해 도교, 기독교, 한의학 등 안해본 공부가 없었다. 하지만 아무런 해답을 얻을 수가 없었다. 불교를 접하



또한 불교 환경운동 단체인 인드라마생명공동체 공동대표로 수행환경 지킴이로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외에도 재단법인 선학원 이사, 조계종 불교여성개발원 특별자문위원 등을 맡으며 시민단체 활동가로 부처님법의 사회화에 힘쓰고 있다. 노원구 경승, 맹호부대 군법당 건립 지원 및 군 장병 위문 등 소외 계층에 불교를 알리는데도 많은 공

## 비구니회·자비의 전화·인드라마공동체 등

### 다양한 분야에서 실천하는 곳곳한 수행자

고서야 비로소 그 해답의 실마리를 얻은 스님은 은사스님인 대영 스님 문하에서 10여년을 행자로 수행에 매진했다.

1979년 해인사 일타 스님을 은사로 사미니계를, 82년 범어사에서 비구니계를 수지했다. 이후 수덕사 견성암 등 전국 제방에서 안거를 성만했다.

정덕 스님에게는 '실천하는 수행자'라는 수식어가 항상 따라다닌다. 자비의 전화가 확대 개편된 불교상담개발원의 수장을 맡아 부처님 말씀으로 중생들의 아픔을 덜어주고 있고 입적하신 해운 스님을 모시고 비구니 위상정립을 위해 시작한 전국비구니회 활동도 벌써 20년째다.

광우스님이 회장하던 시절에는 사회부장으로 8년동안 회관 건립 등에 전국비구니회의 주요 현안들을 임원 스님들과 합심하여 현실화시켰고 지금은 부회장 소임을 맡아 후학들의 모범이 되고 있다.

을 들이고 있다. "바깥활동이 많아 사람을 자주 비웁니다. 상좌들과 신도들에게 미안하지만 더 많은 사람들에게 부처님의 말씀을 알리기 위한 일하기에 몸은 힘들고 항상 시간에 쫓겨 살지만 보람을 느낍니다."

정덕 스님은 최근 그동안 가슴 속에 묻어두었던 꿈을 펼치고 있다. 미륵사 창건이 바로 그것.

서울 월계동에 인과선원을 창건, 도심 포교에 전력하면서 스님은 바쁜 현대인들에게 마음의 위안이 되어 줄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야겠다는 꿈을 가졌었다. 그래서 충남 금산에 부지를 매입하고 본격적인 미륵사 불사를 시작했다.

아직은 시작단계에 불과 하지만 스님은 미륵 부처님의 도량을 완성하는 것을 이 생의 마지막 서원이라며 연신 천진스런 웃음을 내 보이신다. 김두식 기자

## 지관 스님, 무관·법혜 스님에 계맥 전수



조계종 원로의원 지관 스님(오른쪽)이 무관 스님에게 범어문종의 계맥을 전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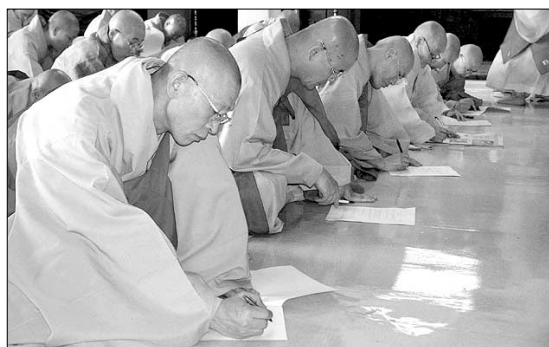
조계종 원로의원 지관 스님에 의해 전승된 범어문종의 계맥이 무관 스님(조계종 총무부장)과 법혜 스님(동국대 경주캠퍼스 교수)에게 이어졌다. 8월 28일 합천 해인사 대적광전 금강계단

에서 열린 전계식에서 지관 스님은 만하-성월-경엽-자운 스님으로부터 이어져 온 계맥을 무관·법혜 스님에게 전계했다.

지관 스님은 전계제자들에게 전계증과 계맥전승도, 계첩을 수여한 뒤 "수행의 근본인 계율을 청정히 해 진정한 흥불(興佛)의 시대가 올수 있도록 노력하라"고 법어를 내렸다. 무관 스님과 법혜 스님은 발원문을 통해 "계율을 굳

게 지켜 훼손하지 않겠다"고 서원했다. 한편, 대구 파계사 영산율원(율원장 철우)도 10월께 자운 스님의 계맥을 종진·성우·철우 스님에게 잇는 전계식을 열 계획이다. 조용수 기자 pressphoto@buddhapia.com

## 태고종 스님 200여명 법계고시 치러



9월 1일 서울 봉원사에서 열린 태고종 법계고시에서 스님들이 답안을 쓰고 있다.

"스님들도 시험을 무지 싫어합니다. 그렇다고 시험도 안 치르고 어른 노릇 할 수 있나?" 시험 감독이 엄하게 분위기를 잡았지만 장난끼가 발동한 한 스님이 옆 사람을 살짝 엿보면서 시험장은 한바탕 웃음소리로 가득

찼다. 9월 1일 서울 봉원사에서 열린 태고종 제9차 법계고시는 그렇게 시작됐다. 법상에 올라 법문을 하던 2백여 스님들도 이날만은 시험에 응시하는 학생 처지가 됐다.

가장 낮은 법계인 선덕 고시장이 마련된 설법전은 화기에 애환 긴장감이 감돌았다.

선덕 바로 위 법계인 중덕의 문제지에는 조사 스님들의 어록이 통째로 담겼다. 승

랍 20년 이상의 중덕 법계 면적이 치러진 삼천불전에서는 갖가지 법문이 쏟아진다.

법계 승계 여부는 9월 25일 열리는 고시위원회에서 결정되며 풀수식은 10월 4일 봉원사에서 열린다. 박봉원 기자 bypark@buddhapia.com



# 세상을 맑게 삶을 여유롭게

우리가 아무리 바빠도 불교가 있기에 쉬어 갈 곳이 있습니다.  
그곳에 불교TV가 있습니다.



불교TV 사업국

☞ 사찰광고 제작    ☞ 기업광고 제작    ☞ 불교행사 기획·방송    ☞ 해외 및 국내 사찰 성지순례    ☞ 고승 다큐멘터리 제작    ☞ 기타 방송프로그램 제작·판매

02-3270-3333/3366~3369    www.btn.co.kr